

동서문화가 어깨를 나란히하는 문화공존

오리엔탈리즘과 다문화주의

김성곤

서울대 교수 · 영문학

팔레스타인계 미국인 비평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1978)이라는 저서를 통해 서구 지식계에 충격을 준지도 내년이면 벌써 20년이 된다. 미국 대학의 동양학과 소속 백인교수들은 당시 긴급회의를 열어, 사이드가 그 의미를 오염시킨 '오리엔탈'이라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며 학과의 명칭을 바꾸기에 이르렀다. 미국의 많은 대학들에 동양학과가 사라지고 대신 중동학과 또는 근동학과 같은 세분된 이름이 생겨나게 된 것도 바로 그러한 맥락에서였다.

주변문화의 제자리를 찾기 위해

물론 예전에는 동양을 연구하는 학자를 오리엔탈리스트라고 하고, 그가 하는 학문적 작업을 막연히 오리엔탈리즘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사이드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특별한 의미로 사용한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을 '오랜 세월을 걸쳐 서구인들의 의식 속에 투영되어 온 동양에 대한 편견'이라고 정의하며, "그것은 단순히 동양에 대한 서구인들의 환상이 아니라, 서구인들이 만들어낸 동양에 대한 이론이자 실천이며, 진리로 굳어진 하나의 조직적인 지식 체계이다"라고 말한다. 그래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서구인들로 하여금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동양에 대해 권위를 갖게 해주고, 심지어는 동양을 만들어내는 힘까지도 갖고 있는" 정치적 용어가 된다.

사이드의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에서 푸코의 담론이론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순간이다. 푸코는 지식과 권력이 담합해 당대의 진리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다. 사이드 역시 하나의 지식체계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이



서구인들의 헤게모니와 담합해 동양을 창조했고, 그 허구적인 동양의 이미지를 리얼리티로 바꾸었으며, 더 나아가 그것을 진리로 만들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심도 있는 책읽기를 위해서는 푸코의 《지식의 고고학》과 《감시와 처벌》을 같이 읽어야만 한다. 그때야 비로소 독자들은 사이드가 왜 "동양은 스스로 존재하지 못한다. 동양은 서양에 의해 재현될 뿐이다"라고 말하는가를 깨닫게 된다.

《오리엔탈리즘》에서 사이드가 제시하는 것은 결코 반대급부적인 《옥시덴탈리즘》이 아니다. 그는 그 책의 마지막에 오히려 동서 문화가 동등하게 공존하는 다문화주의를 동서 갈등극복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에드워드 사이드는 다문화주의를 통한 동서의 공존을 주창한다. 제국의 권력과 지배에 의해 주변문화로 밀려났던 고유문화들의 정당한 위치를 되찾자는 의미이다. 문화란 민족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상호이해 가능한 공존의 영역이 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한다.



위부터 미셸 푸코, 에드워드 사이드, 새뮤얼 헌팅턴.



의 그러한 사상은 1993년에 출간된 《문화와 제국주의(Culture and Imperialism)》에서도 그대로 이어진다.

예컨대 《문화와 제국주의》에서 사이드는 "이 세상에 순수한 문화란 없다"라고 말하며 문화의 비순수주의를 선언하는데, 그것은 곧 다문화주의를 통한 동서의 공존이라는 그의 사상을 잘 표출해 주고 있다. 사이드는 서구인들이 문화적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흔히 서구 아리안문화의 순수성을 주장하지만, 사실 서구문화의 근원인 헤브라이즘이나 헬레니즘은 둘다 그 뿌리가 동양이라는 점을 상기시킨다.

즉 헤브라이즘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건너 갔고, 그리스문화 역시 이집트문화와 페르시아문화가 뒤섞여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중동지방이 원래 동서문화가 혼합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사이드의 지적은 역사적인 신빙성과 설득력을 갖는다. 지난 95년 서울에 온 사이드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다문화주의 사상을 피력했다.

"저는 동서문화의 공존을 주창합니다. 제가 말하는 '공존'은 물론 떳떳하고 대등하게 서구문화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동안 제국의 권력과 지배에 의해 주변문화로 밀려났던 우리의 고유문화가 차지해야 될 정당한 위치를 되찾자는 것

을 의미합니다. '공존'이라는 말에는, 또 동양문화가 서구문화를 지배하는 똑같은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혼혈이고 서로 뒤섞여 있습니다. 문화란 민족과 국가간의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상호이해가 가능해지는 공존의 영역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를 주창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동서갈등은 정치 아닌 문명에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 이론은 물론 유럽과 아랍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서구와 동양의 문제 전체를 포괄적으로 성찰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재일교포 학자 강상중 교수의 최근 저서인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같은 책들은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성찰을 동아시아의 경우로까지 확

오리엔탈리즘, 다문화주의 관련서

제 목	지 은 이	옮 기 이	출판사
문명의 충돌	새뮤얼 헌팅턴	이희재	김영사
오리엔탈리즘	에드워드 사이드	박홍규	교보문고
문화와 제국주의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 정정호	창
감시와 처벌	미셸 푸코	오생근	나남
지식의 고고학	미셸 푸코	이종오	민음사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강상중	이경덕 · 임성모	이산

냉철한 예술가의 훈훈한 입김

이덕희 지음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를 읽고

민만기 · 《월간 오디오》 편집장

대적용한 좋은 경우가 된다.

그러나 사이드의 이론이 모두에게서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사이드의 다문화주의를 통한 '문명공존론'은 얼마전 하버드대 교수인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1993년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지 여름호에 발표한 글 〈문명의 충돌〉(후에 같은 제목의 책 출간)에서 헌팅턴은 "앞으로 인류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야기할 가장 큰 원인은 문화적인 것이다. 이제는 문명의 충돌이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팅턴은 냉전 이후의 새로운 국제질서를 예견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동서의 갈등은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기독교문명과 이슬람 및 유교문명과 충돌에서 비롯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헌팅턴은 또 최근 니코시아에서 열린 〈정치적 이슬람과 서구〉라는 세미나에서도, 2025년이 되면 이슬람교도의 숫자가 기독교도의 숫자를 앞질러 서구와 중동간의 종교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헌팅턴의 이와 같은 우려는, 백인들의 인구 증가를 능가하는 흑인들의 인구 급증과 그로 인한 노예반란을 우려했던 19세기 초 미국인들의 우려와 아주 흡사해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

헌팅턴은 또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점점 더 확연히 드러나는 중국의 부상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이는 금년 여름 미국 텔레비전에 방영되어 화제를 뿌린, '중국을 조심하라'는 어느 미국인 여성 예언자의 경고와도 일치하는 것이어서 많은 미국인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문제는 월남전 때 캄보디아 폭격을 지지했던 헌팅턴이 문화를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데에 있다. 그와 같은 사고방식의 이면에는, 분명 기독교 특유의 이단배척 의식과 서구문명의 우월감이 자리잡고 있다. 또한 헌팅턴 이론의 배경에는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그려지는 세계지도 속에서 헤게모니의 상실을 우려하는 보수적 미국인들의 불안도 자리잡고 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탐구하고 지향해야 할 것은 헌팅턴의 문명 충돌론이 아니라,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과 다문화주의 사상인 것처럼 보인다. ❖

고전음악에 심취하게 되면 작곡가의 그늘에서 벗어나 특정한 지휘자의 향기를 맡고 싶어한다. 음반에 나타나는 소리 색깔에 의존할 뿐 자칫 그 이면에 숨겨진 인간미는 놓치기 쉽다. 더구나 예술성만을 부각시킨 전기물이 주는 압박감, 단편적으로 평가한 글이 주는 경직성에 우리는 쉽게 포기해버리고 만다.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출판계획에 이끌려 서둘러 끝내고 마는 기존의 방식을 거부했다. 저자 이덕희씨가 젊은 시절부터 가슴에 품어온 토스카니니에 대한 짝사랑을 고이고이 쌓아두었다가 지면을 통해 고백한 것이다.

1867년 이탈리아 파르마의 재단사의 아들로 태어난 토스카니니는 이탈리아 로시 극단의 첼리스트 겸 부합창지휘자에서 어느 날 〈아이다〉 공연에 등용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돌이켜보면 푸르트벵글러와 20세기 지휘계를 양분했던 불멸의 지휘자 토스카니니. 저자는 단순히 지휘능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인간 토스카니니의 위대성과 예술가 토스카니니의 불멸성이라는 답사코스를 이 책을 통해 섬세하고 다정다감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살아 있는 악보도서관'으로 불리는 암보력, 심포니의 악장마다 에너지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요구하는 그의 집중력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에

'살아 있는 악보도서관'으로

불리는 암보력, 심포니의

악장마다 에너지의 한 방울까지

요구하는 그의 집중력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이 책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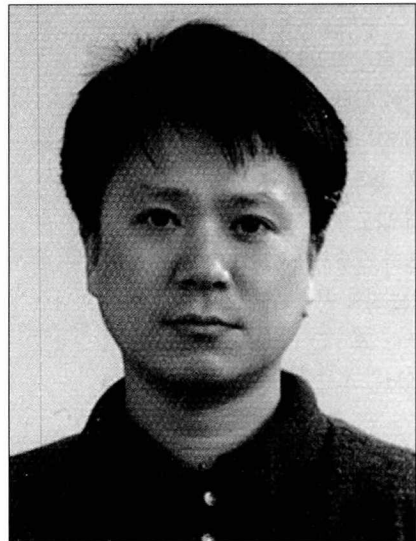
그에 대비되는 '연애유희'와

가족에 대한 따스한 사랑이

세세하게 그려져

인간 토스카니니를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민만기씨.

대비되는 '연애 유희', 가족에 대한 따스한 사랑이 세세하게 그려져 인간 토스카니니를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멘델스존의 조카 손녀인 '엘레오노라 폰 멘델스존'과의 사랑 등 그의 '바람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중인격이 아닌, 팽팽히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된 초인적인 삶에서 생존에 필수불가결한 활력소이며 긴장을 풀어주고 삶을 재충전시키는 원동력으로 풀이되고 있다.

47센티나 되는 긴 지휘봉을 수없이 꺾어버린 공포의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쿿대 높은 빈펄의 단원들도 스코어를 집으로 가져가 연습하게 만들어버렸고, '결코 매수될 수 없는 귀를 지닌 위대한 음악가'로 불린 그의 굳건한 영혼은 죽음을 무릅쓰고 무솔리니나 히틀러 등 정치권력에 대항한 예술가의 표본이다. 인기와 명성을 좋아한

푸르트벵글러와 근본적으로 대비되는 토스카니니는 다분히 폭군적이며 비타협적이고 완벽주의를 추구했던 인물로 묘사되고 있으며, 푸치니와의 우정과 갈등 등 70년에 걸친 왕성한 지휘활동이 흑백 무성영화처럼 펼쳐진다.

또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부조니, 크라이슬러, 카라얀 등 유명 음악가들의 증언을 빌려 토스카니니가 누렸던 막강한 권위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텔리비타케처럼 극도로 레코딩을 거부했던 토스카니니이지만 그도 만년에 후대에 남길 기록을 의식했는지 263회에 걸쳐 녹음을 했다. 1957년 베르디와 같은 나이(87세)에 죽을 것이라는 자신의 예언을 깨고 생일을 두 달 앞둔 90세에 죽음을 맞이한다.

이 책의 1부는 저자의 글이, 2부는 미국의 저명한 음악비평가 초트치노프의 글과 전문음악가 B.H. 해긴의 글이 재구성되어 있어 다채로우며, 부록편에는 구입이 가능한 토스카니니의 레코드 목록이 나와 있어 저자의 섬세함을 엿볼 수 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 위대한 예술가의 숨결이 책 표지디자인까지 전달되지 못한 점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음처럼 차가운 가슴의 소유자 토스카니니, 그 이면의 훈훈한 숨결이 책 전체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다. ❖

예하/A5신/278면/9000원

